

제로금리 시대...개인투자자 단기상품에 몰리나

은행권, 예·적금 대출금리 인하 시기·폭 놓고 저울질 저가매수 노리는 개인 투자자 한 달 간 11조원 순매수 펀드 단기상품 11.8% 증가...안전자산 금값은 하락

한국 기준금리가 0% 대에 접어들면서 은행권이 예·적금과 대출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저울질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 폭락 속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11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인하·은행권 눈치싸움=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 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0.5%포인트 낮춘 0.75%로 정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하 시기와 인하 폭은 결정된 바가 아직 없다"면서도 시장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농협은행이 예금금리를 최

대 0.25%포인트 내린 것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까지 일부 예·적금 금리를 인하해왔다. 인하 폭은 0.10~0.30%포인트였다. 광주은행도 지난해 11월 상품별로 0.10%~0.25%포인트 금리를 내렸다.

상호금융조합인 신한 광주전남본부 소속 89개 조합도 단위조합 별로 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예·적금과 대출금리 인하는 조합 이사장이 결정한다"며 "나주신협은 3~6월 대출금리를 절반 가량 낮춘 2.5%로 결정했으며 최근 2주일 동안 이 대출상품 이용 건수는 41건 대출금액 3억 4000만원(한도 20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금리와 금융채금리 등에 연동

된다. 코픽스는 매달 15일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이번달 코픽스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다음달 코픽스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개미들 11일째 매수·안전자산 '금'은 하락세=글로벌 증시 폭락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이들은 한 달 간 11조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19일 개인은 11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오전 10시20분 기준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1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906억원을 팔았고 기관은 1641억원어치 사들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18일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총 8조3863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달 월별 개인 순매수금액은 4조 897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증시 불안으로 투자금은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몰리는 모양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2월 국내 펀드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펀드 순자산 규모는 691조 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조8000억원(1.6%) 증가했다.

펀드 유형별로 보면 단기금융상품인 MMF 순자산이 전월 말보다 15조3000억원(11.8%) 증가한 14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로 인해 주식형 펀드에는 2310억원이 순유입됐다.

코로나19 공포에 안전자산인 금(金) 가격마저 지난주부터 내려가는 추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금 펀드 12개의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은 -12.45%에 그쳤다. 19일 오후 7시 기준 국내 금 1돈(3.75g) 시세는 22만7700원으로, 일주일 전(12일) 23만7788원) 보다 1만원 가량(-4.2%) 떨어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은행 '전남도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서옥원·왼쪽 두번째)는 최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 제휴카드 적립기금' 3억1900만원을 전남도에 전달했다. <농협은행 전남본부 제공>

3억1900만원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최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 제휴카드 적립기금' 3억1900만원을 전남도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 제휴카드 적립기금'은 전남도가 지역 사회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카드 사용액과 도청 법인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이 적립돼 조성된다.

전남영업본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전남도에 적립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전달식에는 김영록 도지사,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서옥원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 본부장은 "앞으로 도정을 위해 동행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JB금융, 코로나19 극복 6억5천만원 기탁

광주·전남·전북 3억5000만 대구·경북지역에 3억원 전달 현열 등 사회공헌활동도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각각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했다. 대출 고객에게는 최대 1%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만기도래 대출금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하고 있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광주은행 입점업체에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30%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145개 모든 영업점에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설치해 광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담, 서류접수, 현장방문, 보증약정 등의 업무를 직접 대행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광주신보의 상담업무를 수탁하면서 고객이 대출 신청을 위해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대출심사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19일 광주은행은 19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중욱 광주은행장, 박홍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앞서 광주시에 성금 1억원을 전달한 뒤 이날 전남도에 코로나19 긴급구호 성금 1억원을 전했다. 앞으로 대구·경북지역에도 5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기홍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태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JB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앞장서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대상 확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은은 19일부터 지원대상 업종을 교육, 보건·사회복지, 개인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하고 농림어업도 지원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단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외국기관, 유흥주점,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신용등급 6~10등급 업체 등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저신용 업체들에 대한 지원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모든 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동일한 기준치를 적용해 대출실적의 50% 해당액을 지원해왔다. /백희준 기자 bhj@

우체국, 카카오키퍼 미니골드바 출시

오늘부터 인터넷 판매

우정사업본부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입힌 '우체국 미니골드바(사진)'를 20일 오전부터 인터넷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기본 중량은 반돈(1.88g), 한돈(3.75g), 두돈(7.5g)이며 캐릭터 별로 2가지 종류로 총12종이 출시된다.



판매가격은 국제 금 시세 등을 반영해 매일 오전 9시, 오후 1시에 변경된다. 18일 기준 한돈

가격은 31만1900원으로 책정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세일글

"지역민과 함께 따뜻한 금융 실천"

이문규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신입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이문규(52) 전 전북지부장이 부임했다.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 신입 본부장이 부임해 지난 16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 신입 본부장이 부임해 지난 16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 신입 본부장이 부임해 지난 16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신입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이문규(52) 전 전북지부장이 부임했다.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 신입 본부장이 부임해 지난 16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 신입 본부장이 부임해 지난 16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 신입 본부장이 부임해 지난 16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